

고은 불교대하소설



바 아호로 무욕도란에는 호서북부 바닷가의 뜻있는 사람들이 의한 지원이 한층더 깊어졌다. 이번 내포와 서산 당진 그리고 안면도 일대를 휩쓴 괴질과 맞반의 작은 봉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지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무욕도의 수백이라 한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그 환경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정신이 지탱해야 할 물질의 결핍 자체가 정신적인 난관이 되어 미망하다. 그런데도 이 섬의 살림이 그러저럭 겉으로 초조하지 않게 이어온 것은 워낙 우녀의 타고난 내림을 바탕으로 삼은 살림 솜씨 때문이기도 하였다.

두 어린이 건너오다

그녀는 그 극단에 이르러서는 이곳에서 마실 물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승의 빛10년은 얼마든지 덧뭏하게 살 수 있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이나 허세도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예비된 결단이 그녀의 오늘까지 지배할 정도로 힘찬 의지가 갖추어져 있었다.

바위의 절경으로 된 섬이라 어느덧 그 바위를 뛰어넘은 것만으로도 모른다.

아무튼 최근에는 무욕도는 그동안 아침에 먹던 붉은 죽까지 없애고 사시(四時)를 지난 점심과 저녁을 대신하는 술일 반 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정도와 음식이어서 사실상 하루에 한번만 먹는 것으로 되었다.

대해는 처음 며칠은 눈두덩이 꼭 꺼졌고 발을 씻지도 않고 할 만큼 하루하루의 부족한 음식 때문에 이 섬을 어떻게 뛰쳐나갈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소식쟁자는 한창 무리익은 처녀여 사인지 한 가니로도 끄떡없었다. 아니 남자가 여자보다 덜 생명력이 강인하다는 것을 이 런때 보여주려는 것 같은 그녀의 의지도 그대로 그녀의 싱그러움으로 하여금 드러내고 있었다.

인담이 우녀에게 물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거나와 옛 시 한편을 읊었다. 한시로 읽고 우리말로 다시 풀어서 읊는 것은 누가 들으라는 의도가 아닐 수 없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아 스무명이나 죽었어요 무서워서 우리 둘이 무욕도로...”

자난해 가난이아 가난이 못되나니 울해 가난이 가난이겠네
 지난해에는 송곳 하나 꽃을 땅 없었건만 올해에는 송곳조차 없구려
 (去年年歲未是貧 今年歲始是貧
 去年無草種之地 今年雖也無)

이 시는 본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읊은 것은 아니다. 그런 시야 만연의 무보(杜甫)가 보여준 남루하기까지 한 정직함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떠돌며 겪는 가난을 노래한 것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는 송곳 하나 꽃을 땅이 없는 가난이 읊는 그 송곳 하나 없는 가난으로 처달은 상태는 분명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정신의 일일 터이다.

웃 두어벌로 더위와 추위를 겪고 바닷대 하나에 찬밥 한 덩어리 담아 먹는 출가생활

“이곳에 황금부처도 있고 쌀과 소금이 동굴속에서 무진장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건방진 것도 모르는 것먹이 같으니러구.”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름되면 누가 누구인지, 누가 말하고 누가 대꾸한 것인지 통 모르게 된다.

사람은 마치 그것이 꼭꼭 인양 거기서 서로 음막 한번 씩 쳤다. 하지만 인담으로서의 우녀의 동쪽을 치기 보다는 어루만졌다는 것이 맞았다.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있어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들 두 사람만으로 살던 때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데 대해나 소식의 눈길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꼭 옛날 얘기속의 오우이인양 그런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 정(情)이었던가. 아니다. 소나무 잎과 잎이 서로 바람이 부딪치는 것이고 달빛이 지상의 어둠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것이 나 거의 다들 바 없었다. 그들에게는 음악의 정이 있으려면 진작 있어서 실컷 불타고 남았을 것이다. 불타고 난 재조차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만들려듯 씨앗처럼 방향도 모르고 흩어지는 일에 실패보였다. 인담에게도 실로 무서운 남성의 기운이 있었다. 그의 장작 때는 도끼질은 아주 사나운 짐승을 떠올리게 한다.

우녀 역시 그가 한번 남성을 이성으로 사로잡을 작정이라면 이 무욕도에 있던 듯 새내들을 다 날 부러지게 만들고 물 건너 육지의 새내나 지나가는 배의 새내들을 불러들여 그들까지도 발목장의 발목 나머지 따위로 뺏아버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 부질없는가를 그녀의 제7식 재흥식이 나와 5판(五版)과 의식 따위를 볼 눈처럼 녹여버린 것이다. 아니 8식과 6식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정답게 앉아서 해가 수평선으로 기울기 전에 한참 그의 영혼력을 펼치는 나조로 온몸 새빨갳게 하늘을 칠해놓고 있는 저녁을 흠뻑 누리고 있었다.

“좀 길다. 남의 다리가 대들보나 하면 슬만하였다.”
 “그만... 대들보가 쓰러졌다.”
 “집 지을 일 없어졌다.”
 “시원하겠도다.”
 “언제 안에 산이 있었더냐. 날마다 시원한 바다인 것을.”
 “예게! 건방지구나.”

그런 새내간 낙조의 한쪽 바다위에 무엇인가가 언뜻 보였다. 우녀의 눈은 그녀의 귀와 함께 밝아서 하늘에 뜬 숲개의 그것이었다. 아니 천안통(天眼通)의 씨앗 그것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고래라도 나타난 것인가? 나는 요새 눈이 먼저 놀아가는지 잘 안보이는구로.”
 “고래도 아니고 고래새끼인 것 같아요.”
 우녀의 대답이었다.

“이곳에 황금부처도 있고 쌀과 소금이 동굴속에서 무진장 나온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녀가 한참 뒤에 말하였다.
 “아무래도 한번 뱃사공이 되어야겠어요. 인담과 함께...”
 “그러지... 그러지요.”
 “이왕이면 대해처사와 함께 타세요. 그 사람이야 바다에는 하늘의 재비 같으니까.”
 “그러지요.”

인담이 대해를 풀었다. 이제 인담도 알 수 있었다. 바다 위의 그것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람이 뱃목 따위에 몸을 걸치고 떠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무욕도의 폐배를 저어서 파도의 가파름을 끌려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과연 몇개의 뽕나무를 뒤편을 따위로 영성하게 얹어매어 거기에 두 어린 아이가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는 기진맥진한 체 몸의 상체만을 뽕나무 위에 걸쳐놓고 있었고 하나가 바둥거리며 그들이 탄 것을 조금씩 움직여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달치는 파도들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므로 거의 제자리에서 맴도는 실정이었다.

대해가 익숙한 솜씨로 폐배를 갖다 대놓고 우선 고개를 쳐박은 아이부터 옮긴 다음 아직 움직이고 있는 아이도 옮겼다.

아이들의 뽕나무 뱃목도 폐배에 묶어 달았다. 이런 일을 대하는 물 위를 땅위로 삼고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황해를 주름잡아 중국의 동해안이나 조선의 여러 해안을 오고가며 장사를 하던 내력이 어디 가졌는가.

인담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대해가 아이들을 큰 소리로 열려냈다. 아니 거칠게 꾸짖기까지 하였다.
 “네놈들 뽕나무!”
 이런 말이 그들 중의 기진맥진한 아이를 깨우는 데 성공하였고 아직 눈을 뻗어 든 아이한테도 정작 살아있다는 안도감 때문에 넋을 놓지 못하도록 하는데 유효하였다.
 “네놈들 뽕나무! 뽕나무!”
 “네...”
 “네... 우리 마을 새말 40가호에 역병이 돌아 스무명이나 죽어났어요...저희들의 부모도 눈감고 누워있어요...그래서 무서워서 우리 둘이 무욕도로 건너오려고 나선 것이어요.”
 “너희들이 무욕도를 어찌 아느냐?”
 “무욕도야 다 알아요... 이곳에 황금부처도 있고 쌀과 소금이 무진장 동굴 속에서도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어...”

그림·조향숙

회전식(법륜)

(銀)염주지압반지 탄생!

건강과 기도수행하며 소원을 이루는 반지

염불하는 공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성불하는 인연되어지이다.

특징

법은 예로부터 세계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한 관계속에서 오늘날까지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인체의 해로운 성분과 인체내 금방 색깔이 반응한다는 것과 인체의 해로운 660여종에 살균효과 및 임금분해 수락성에 온수기가 물리친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몸의 일상에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금속이 많은 불타는 물질의 건강과 기도할 수 있도록 92.5%의 은은한 회전식 법륜 염주지압반지, 은단주, 합장주, 호신불, 불꽃,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륜 회전식 염주 지압반지의 좋은점

은은 92.5%의 은은한 회전식 법륜 염주지압반지는 지압효과를 볼수있는 염주가 인체에 있으며 바늘을 0.7mm의 면에는 200여개의 미세, 지압, 관세로 보습이 이루어져 진통, 냉소, 목욕탕등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주, 염주처럼 한, 두 돌리면서 수행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륜이 움직이니 수제식대 불타는 성분으로도 좋은 반지와 건강과 기도를 함께 수행하며 자신의 건강에 따라 소원을 이루는 반지입니다. 염불하며 성불하겠다는 염원을 세우신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행구구입니다. 14, 19는 별도 주문 제작하여 드립니다. (소재지:경기도 W10,000)

지압법

1 은염주 은92.5% 규격: 8mm W96,000	2 은성불 단주 은92.5% 규격: 10mm W50,000
3 합장주 은92.5% 규격: 5.6mm W17,000	4 호신불꽃목 은92.5% 규격: 5.6mm W15,800

염주 지압반지 특허출원

• 판매원: **출발나마스페**
 서울특별시 중구 남동동 5번지 삼익패션타운4층 153호 TEL: 779-1932 · 779-1938 FAX: 779-1932 사무실: 대표전화 318-3522 FAX: 779-1440

• 지역대리점: 서울 (종로)제일사 274-0797 (종로) 진은사 273-4864 광주성민유류 062-222-5537 대구제일사 053-252-4370 부산세진 051-644-7151 은해공방 051-241-2136 부산불교전서민 051-647-7393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관절염
- 퇴행성 골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 수입원 제품

2달분(정제형) ₩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머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 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분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하루 딱 한번 복용!!

삼일양행
 서울: (대)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주)한국복지공사
 총 합: 094-01-146594
 우체국: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 소포우송)